

혈액수급 비상... 지자체·해경 '팔 걷어붙였다'

코로나 여파 학교 등 단체 취소
올 1~8월 헌혈 실적 30% 급감
나주·무안·신안군 자발적 동참
해경 '헌혈영웅 찾기' 캠페인

코로나19 사태로 헌혈이 급감하면서 혈액부족에 따른 의료현장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전남 지자체와 해양경찰이 '사랑의 헌혈 운동'에 팔을 걷어붙였다.

15일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에 따르면 1~8월 기준 단체헌혈 실적은 2019년 3만9836명에서 올해 2만8120명으로 29.4%(1만1716명) 감소했다.

광주·전남지역 코로나19 확산으로 고교 및 대학교 수업이 비대면으로 전환되면서 당초 예정됐던 단체헌혈이 취소된 결과다.

고교 단체헌혈은 지난해 1만5672명에서 3113명으로 80.1%(1만2559명) 줄었고, 대학 역시 5394명에서 484명으로 91%(4910명) 급감했다.

혈액 수급의 한 축을 담당했던 군부대와 종교시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군부대는 고교·대학 단체헌혈 급감으로 전담 혈액팀을 운영하면서 목표 대비 77%를 달성했으나 7월부터 광주지역 코로나19 확산으로 현재까지 헌혈이 제한되고 있다. 종교시설도 지난 5월부터 시설 내 헌혈 활동이 제한되면서 지난 해 1003명에서 올해 543명으로 절반가량이 줄어들었다.

다행인 것은 혈액 수급난을 우려한 일반시민과 공공단체, 국가기관 등에서 소수대를 견어붙이면서



나주시 공직자들(왼쪽)과 여수해경 직원 및 의경들이 '사랑의 헌혈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감소폭을 완화시키고 있다.

나주시는 최근 시청 대회의실에서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과 '사랑의 헌혈 운동'을 실시했다.

이날 헌혈은 체온측정, 손 소독,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 하에 시청 공무원과 시민 250여명이 자발적으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데 힘을 보탰다.

나주시는 지난 2005년부터 매년 상·하반기 총 2회에 걸쳐 헌혈운동을 하고 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코로나19 확산 우려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단체헌혈이 취소되는 등 혈액수급에 어려움이 큰 것으로 안다"며 "헌혈에 동참해주신 시민과 공직자들의 응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무안군도 혈액 수급 안정을 위해 생명사랑나눔

헌혈운동을 펼쳤다.

무안군 공무원과 지역주민 40여명은 최근 보건소와 송달문화예술회관 광장에 마련된 대한적십자사 버스에서 헌혈에 동참했다.

헌혈에 참여한 A씨는 "코로나19로 인해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번 헌혈에 동참하게 되었다"며 "헌혈이 주변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안군도 최근 군청앞 광주전남혈액원 이동헌혈 차량에서 진행된 헌혈에 직원은 물론 지역주민들까지 참여했다. 헌혈 참여자에게는 B형·C형 간염검사 등의 검진 서비스와 자원봉사 4시간 부여, 소정의 증정품을 제공했다.

목포해양경찰과 여수해양경찰도 지난 8일과 9일

'6700명 헌혈영웅 찾기' 캠페인을 벌였다.

해경은 지난 10일 '제67회 해양경찰의 날'에 맞춰 해양경찰청이 주관으로 '6700명 헌혈영웅 찾기' 캠페인을 전국 해경관서와 함께 연말까지 전개하고 있다.

목포해경은 정영진 서장을 비롯해 직원 및 의경 120여명이, 여수해경은 송민웅 서장 등 70여명이 헌혈에 참여했다.

정영진 목포해양경찰서장은 "최근 코로나19 확산과 태풍 영향 등으로 혈액 수급 상황이 좋지 않다"며 "해양경찰의 작은 실천으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희망의 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김민수·임동현·이상선·박영길·김창화 기자 kms@

출입명부 대신 전화로

고흥군, 전남 첫 도입

고흥군이 청사 출입자 기록을 손으로 적는 수기에서 전화를 걸어 간편하게 입력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15일 고흥군에 따르면 청사 방문자 중 '코로나19' 확진자나 접촉자 발생 시 이동 경로를 파악해 n차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전화 한 통으로 간편하게 출입자 기록을 관리하는 '발신자 전화번호 출입관리 방식'을 전남 최초로 도입했다.

그동안은 군청사 및 읍면사무소를 출입하는 민원인에게 성명, 휴대폰 번호, 거주지 등을 수기로 작성토록 했으나, 수기명부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고 민원인들도 불편이 적지 않았다.

새로 도입된 방식은 민원인이 청사를 출입할 때 본인의 휴대전화로 직원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전화번호에 전화를 걸면, 출입자의 전화번호와 방문일시 기록이 군청 서버에 자동으로 저장되는 방식이다. 기록은 4주 후에 삭제된다.

민원인 A씨는 "업무상 자주 군청을 방문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기재해 매우 불편했는데, 전화번호 출입관리 방식으로 변경돼 출입하는데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하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u@



군청광장에 '민원인 접견실'

장흥군 집단감염 차단

장흥군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청사 광장에 임시 민원인 접견실(사진)을 운영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군청을 찾는 민원인과 직원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된 임시 접견실은 군청사 앞 광장과 주차장 한편에 6개의 천막동으로 이뤄졌다.

장흥군은 임시 민원인 접견실 운영을 위해 청원경찰 인력 4명을 기동배치해 민원 안내를 돕고 있다. 발열 체크, 방역물품 착용, 마스크 착용 등 방역 활동도 철저히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인한 군청 폐쇄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준순 군수는 지난 1일부터 1년간을 '인(In) 코로나 비상행진' 기간으로 선포했다.

코로나19 상황이 내내까지 장기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감염병 예방은 물론 지역경제, 미래혁신 성장동력 마련에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인(In) 코로나 비상행진'은 ▲방재활동 비상행진 ▲지역경제 비상행진 ▲혁신 비상행진 등 크게 3가지 분야로 나눠 중점 추진한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

“올 추석엔 고향 안 오는게 효도”

여수·담양·장성 '이동 멈춤' 동참
담양군, 연휴 거리두기 2단계
여수·장성, 영상 통화·별초 지원
완도군, 전국 향우회와 캠페인

“추석이 코로나19 확산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석 명절에 귀성과 역귀성을 자제하는 이동 멈춤 운동에 동참해 주십시오. 올해는 고향을 찾지 않는 게 효도입니다.”

여수시·담양군·장성군이 '추석 이동 멈춤 운동'에 동참했다. 추석명절 인구 대이동이 감염병 확산의 기록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 대비한 조치다.

여수시는 지역별 향우회와 유관기관, 시민사회단체에 공문을 보내 귀성·역귀성 자제를 호소했다. 읍·면·동에서는 아·통장과 자생단체가 동참해

타지역 거주 가족이나 친지의 상호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알리고, 경로당을 중심으로 자녀들에게 귀성 자제를 유도할 수 있도록 홍보 중이다.

여수시는 특기노인 돌봄 시 가족과 영상통화로 안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별초는 산림조합 등에서 운영하는 대행 서비스를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담양군은 군수 명의로 답화문을 내고 추석 명절 고향 방문 자제를 당부했다.

최형식 군수는 최근 답화문을 통해 “추석명절 민족 대이동이 자칫 코로나19 확산의 새로운 불씨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번 연휴만큼은 되도록 이동을 삼가고 고향방문 자제하기 캠페인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며 귀성과 역귀성 자제를 호소했다.

담양군은 추석연휴 기간 2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나와 가족을 위해 이번 명절은 집에서 쉬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별초는 산림조합과 농협 등에서 제공하는 대행서비스를 이용토록 권고하고 있다. 요양시설과 의료기관에



신우철 완도군수가 완도읍내에서 추석연휴 귀성 및 역귀성 자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완도군 제공>

는 영상통화 등 비접촉면회를 독려할 방침이다.

완도군은 “무엇보다 주민과 향우들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이동 멈춤’은 불가능하다”며 지난 7일부터 지역 사회단체와 전국 6개 시도 향우회와 함께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장성군도 고향과 친지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득이 고향 집과 친척 집을 찾을 때는 마스크 쓰기와 개인위생 관리 등 감염병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요양 시설과 의료기관 면회 자제, 꼭 필요할 때는 비접촉 면회를 요청했다. 별초와 성묘도 가급적 마루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전통시장을 방문할 때는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혼잡한 시간대를 피해달라고 당부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김창화·김용호·노영찬 기자 chkim@

코로나19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정성과 따뜻한 마음으로 진료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www.lovelyline4u.com

신세계 선이고운치과교정과

광주광역시 서구 무진대로 950(농성동) 밝은클리닉 5층
신세계백화점 사거리에서 천변방향
T. 062) 367-2279 | F. 062) 367-2280

원장 | 교정전문 이기현 | 김고운

www.chhospital.com

시엘병원
Creation & Love Women's Hospital

시험관아기기술 · 복강경수술

서구 무진대로 957번(광천동)
대표전화 062.368-1700

건강한 생명, 행복한 미래

전남대학교병원
CHONNAM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원장 이삼용

통합콜센터 1899-0000
응급의료센터 062.220-6801

CHOSUN UNIVERSITY HOSPITAL

조선대학교병원

병원장 정종훈

대표전화 062)220-3114 | 종합건강진센터 062)220-3030
진료예약 062)220-3006, 3009 | 진료협력센터 062)220-3989
광역응급의료센터 062)229-3119 | 홈페이지 https://hosp.chosun.ac.kr

중앙병원

심장내과, 신장내과, 류마티스내과, 소화기내과, 인공신장실, 재활한방과

내과전문의의약품사, 내과전문의의약품사
이강수, 홍순표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84(화정동)
T. 062.456-6600 F. 062.456-6601

마음까지 치료하는 더 큰 사랑

침던종합병원
CHEODAN MEDICAL CENTER

병원장 양원호

광주광역시 광산구 침던중앙로 170번길 59(쌍암동 665-1)
대표전화 : 062)601-8000 응급의료센터 062)601-8119
홈페이지 : www.cheodanhosp.co.kr